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상반된 출발점에서 부각된 두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번은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화제가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꺼야.”라는 말에 허를 찔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관계를 원하지만 그는 더 깊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심이였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한 번은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학교에서 성행위를 한 것이 들통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장 처참해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는 아들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미안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켜서 그런건지 모르겠다며 울었습니다.” 이 경우, 이 청년의 심장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옳고 그름에 대한 뚜렷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더 이상 이런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의 밥을 세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성적인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의 관심사”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단지 성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Christopher West, *Good News about Sex & Marriage*, 42). 저는 게으름을 그만 피우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거짓말을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멈추고, 욕을 그만하기 등등을 바라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광야로 돌아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기 제1 독서의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기원전 1400년 모세의 시대에 하느님께서 히브리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결혼과 입양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은 그분의 가족의 일부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의 일부는 십계명,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길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계명을 계속 어겼습니다.

- 예언자 예레미야 이후 900년 동안,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려고 계속 시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독서에 도달할 때까지: “그날이 온다...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의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가문을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이고, 유다는 남쪽 지파입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었으나, 백 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백성과 결혼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은 먼 신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 있는 법입니다]”(예레31:31-32).

새 언약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1]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가르치거나,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님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3]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Jer 31:33-34. See John

Bergsma & Brant Pitre, *A Catholic Introduction to the Bible*, 797-800).

- 첫째,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웨스트는 “살인해서는 안된다”는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여덟번째 계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것이 오늘날 문제의 핵심입니다. 말장난이 의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기고 있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 18세기 남미에서 신부가 된 노예 상거래업자에 관한 영화 ‘미션’에서 원주민들이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그들이 그것을 잡으면, 이 어린 소년은 멘도사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에 끌리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은 살생을 했지만, 이제 그는 더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열쇠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율법을 두려워 해서가 아니라 더이상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나는 더이상 여자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포르노에, 가족에게 거짓말 하는 것에, 변명을 하는 것이나 가족과 다투는 것에 신물이 납니다.
- 새 언약의 두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약에서 사람들은 단지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존하시는 그분에 대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 여러분이 삶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범주에 속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마 만난 적이 없는 것일겁니다.
 -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당은 거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파와 신앙 공부 제공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행사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 새 계약의 세 번째 특징은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고백,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낙심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욕망.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는 욕망은 이미 마음의 정화이며, 하느님을 기쁘게합니다. 제가 말한 그 어린 10대 소년에게 돌아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를 가장 실망시킨 것은 아들의 죄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이 잘 못한 것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죄를 짓지만, 제가 수업을 방문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눈에 띄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이 신경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경을 쓰는 학생들을 위해, 나는 그것으로 일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그것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Jacques Philippe 신부는 “이 호의가 아니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 일까요? 선하시고 인정 많은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그의 자녀가 사랑하려는 욕망을 보는 것보다 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Searching for and Maintaining Peace*, 18). 우리가 성장하려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에 맞서 싸운다면, 비록 넘어질 지라도, 그 반복되는 노력은 그분께 기쁨입니다.
- 만약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 길을 왔고, 하느님께여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받아들이고, 다음 내용으로 이행 해봅시다.

2) 성체. 성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리는 이것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중 어떤것이 더 강력한가요? 여러분이 밤에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미사에 참여할 때는,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은 그 미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음행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고해성사에 갈 때, 이것은 그분의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 지난 성 목요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성체를 모실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자하는 욕망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20/04/09/restoring-relationships/>). 이것은 자유의지의

본질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갈 때, 그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만, 그분께서 그들에게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실 때, 그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장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에 달려있습니다.

3)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겸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천 년 동안, 신자들은 이것을 통해 맹세해 왔고, 우리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명상에 이르게 합니다. 명상은 예수님의 삶과 깊이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묵주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장합니다. 매일 50단 모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단을 잘 기도드리는 것이 50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보다 낫습니다.

4) 성의 표시. 때로는 막대기가 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뒤로 구부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성의의 표시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은 단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것을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기기에 언약의 눈을 적용하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끊기도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 침묵을 실천합니다. 저는 미래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와 순수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로 그녀의 집에 혼자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젊은 남자가 기억납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브라이언 월치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브라이언 월치의 삶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태어난 브라이언은 재능 있고, 고등학교 농구팀의

주장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신부앞에서는 좋은 가톨릭 신자였고, 주말에는 술에 취했고, 욕을 많이 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은 그가 어떻게 심리검사를 통과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단조로운 방을 가지는 반면, 브라이언은 카펫과 에어컨을 가지고 왔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1년차 마지막에, 신학생들은 열흘간의 침묵 피정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피정 주최자는 학생들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주님, 제가 저의 재능을 낭비하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선물을 낭비하고, 우리 부모님이 제게 준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큰 죄인이었고 저는 저의 삶을 바꾸고, 제 삶을 아버지께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음해, 브라이언은 돌아왔고,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는 차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주었고, 멋진 옷을 벗었으며, 욕설과 술을 끊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미소, 같은 인기, 같은 유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https://uareloved-blog.tumblr.com/post/2800054817/the-story-of-brian-walch>). 하루는, 감실 앞 바닥에 앉아, 그는 오르간 반주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 당신은 예수님께서 가장 성스러운 성체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결국

신학교를 떠나 캄보디아로 갔고, 마더 테레사 수녀의 자매들을 돕기 위해 일반 봉사자로 봉사했습니다. 1975년, 캄보디아 집단 학살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대피할 때, 그는 옛 신학생 친구들에게, “이번에 나를 떠나라고 하면, 나는 이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와 내 피를 섞어야 한다는 부름을 받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여기 머물겠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공산주의 자들의 체포를 피해 비밀리에 매일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미사에서 붙잡혀 교회 밖으로 끌려나와 23세의 나이로 처형 당했습니다. 1년 후, 한 신학교 친구가 마더 테레사 성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아, 당신은 매우 운이 좋군요. 왜냐하면 당신은 성인의 반친구이니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투쟁할 수도 있지만, 욕망과 성체와 목주 기도, 그리고 성의의 표시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찬미 예수님

3월 20-21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낙태 종식을 위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뒤키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소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March 20-21,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Reconciliation 14](#); Lent, Year B, 5th Sunday
6